

개화기

영한대역사전 연구

J. W. Hodge, 『Corean Words and Phrases』(1902)를 중심으로

정동경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국어학 전공

angel1543@hanmail.net

I. 머리말

II. 서지 정보 및 체재

III. 표제어 분석

IV. 기술부 분석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개화기를 전후로 한 시기에 외국인이 간행한 영한대역사전 중 지금까지 국어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하지(J.W.Hodge)가¹ 1902년 개정 증보한 『Corean Words and Phrases』(이하 하지(1902))의 체제 및 구조, 기술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항 이후 서양의 문물과 문화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제도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전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언어생활, 특히 어휘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세계가 만나 소통하기 위해서는 각 언어 간의 다리 역할을 하는 대역사전 및 학습서를 제작할 필요가 생겨났고 이중 특히, 영어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대역사전이나 학습서의 간행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대역사전과 학습서, 문법서에 대한 국어학적인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내에서 발간된 최초의 대역사전인 『한불사전』(1880)과 더불어, 언더우드와 게일이 각각 편찬한 한영사전이 이들 논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² 이에 비해 영한대역사전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지 않았다.³ 특히 하지(1902)는 당대에 간행된 대역사전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의

1 박대현, 「개화기조선어사전의 출판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28쪽에서 J.W.Hodge(하지, 1870-)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영국인 하지는 해군학교를 졸업한 후 1891년 1월부터 영국성공회 해외선교 사무총장인 켈리(Herbert Kelly) 신부의 지도를 받아 런던에서 인쇄술을 익혔다. 그 후 1892년 6월 조선에 도착하여 서울 낙동에 있는 성공회의 인쇄시설을 맡아 일했다.

2 정동경,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0(2020), 51-55쪽에서는 이 시기에 간행된 대역사전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였다.

3 영한대역사전에 대한 논의로는 황호덕·이상현,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일부로 포함되어 언급된 적은 여러 번 있으나 하지(1902)만을 대상으로 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⁴ 하지만 하지(1902)는 영한대역사전이지만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이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의 어휘뿐만 아니라 음운, 문법, 의미 등 국어학 전반에 걸쳐 편찬차가 관찰하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 외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한국어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지(1902)의 체재를 소개하고, 표제어와 기술부를 분석함으로써 하지(1902)가 지닌 국어학적인 가치를 알아보기로 한다.⁵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54-3(2011), 41-97쪽과 이준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영한사전의 미시 구조와 국어 어휘 및 번역어 고찰: 공통 표제어 대응 어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2012), 401-444쪽 등이 있다.

- 4 하지(1902)를 당대에 간행된 대역사전과 아울러 언급한 논의로는 이용호, 「외국인의 사전편찬사업」, 『명지어문학』 7(1975) 15-28쪽, 김민수, 『개정판 신국어학사』(1996, 일조각), 박대현, 개화기조선어사전의 출판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황호덕, 「번역가의 원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상허학보』 28(2010), 93-145쪽, 조남호,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어휘 연구 자료의 관점에서」, 『국어사연구』 22(2016), 47-80쪽, 이은령,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불한사전』과 한불자전에 나타난 화용정보와 언어사용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17), 15-30쪽 등이 있다. 이 중 박대현(1998), 위의 논문, 28-29쪽과 조남호(2016), 위의 논문, 66-67쪽에서는 하지가 편찬한 사전들의 서지적 정보를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였다. 이외에 하지(1902)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디지털한글박물관에 등록된 하지(1902)의 국립국어원 소장본 해제가 있다(archives.hangeul.go.kr/archives/external/organization/12051/biblio).
- 5 김철수, 「한국학의 역사와 변용」, 『정신문화연구』 제10집(1998), 369-393쪽.

II. 서지 정보 및 체재

하지가 편찬한 것으로 알려진 영한사전은 총 두 권으로 1897년과 1902년에 간행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의 서지사항 및 소장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Corean Words and Phrases』 서지사항

| 표제명 | 판본 | 발행처 | 발행년 | 분량(본문) | 소장처 ⁶ |
|---|-----|---|------|--------|----------------------------|
| Corean words and phrases :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 제1판 | Seoul : printed and published privately | 1897 | 145 | 연세대학교 도쿄대학교 |
| Corean words and phrases :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 | 제2판 | Seoul : Seoul Press — Hodge & Co. | 1902 | 369 | 국립국어원 하버드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

표1에 소개된 책 외에도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사전의 본문(어휘부)만이 남아 있는 초판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 소장 중인 재판본은 디지털한글박물관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다.⁷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본인 하지(1902)는 초판본인 하지(1897)의 개정증보판으로 초판보다 분량이 2.5배 가량 증가하였다. 재판본에서는 초판본에 있던 부록을 실지 않은 대신 초판본에 비해 표제어 수를 늘리고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겉표지

6 도쿄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소장본의 서지사항은 황호덕(2010), 위의 논문, 104쪽을 참고하였다.

7 조남호(2016), 위의 논문, 66쪽.

출판사명(Seoul: The Seoul Press-Hodge & Co.), 출판연도(1902) 정보를 차례로 밝혔다. 내지의 뒷면에는 이 책의 소장처 청구 기호(PL937 H6 1902)가 수기(手記)로 적혀 있다.

하지(1902)의 체제는 크게 서두와 본문(어휘부)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두에는 서문과 이 책에서 사용된 부호 및 약어, 한글 자모의 음가와 음운 변화에 대한 소개를 실었다. 먼저 서문에서는 책의 편찬 목적과 편찬 과정이 드러난다. 편자는 이 책이 학문으로서의 한국어를 연구하려는 외국인 대신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편찬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재판본을 만들면서 새로이 추가된 단어와 구 표현을 제공한 조력자가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구체적인 이름이나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다음으로 하지는 이 책을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와 관련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즉, 첫째, 음절 구분 및 그와 관련한 발음법, 둘째, 유기음 발음법, 셋째, 어절에서 강세가 놓이는 위치, 넷째, 한국어의 높임법을 소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외국인이 한국어의 음절이나 형태소, 어절의 경계, 유기음이나 강세, 높임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서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글 자모 및 발음 정보를 제공한 후, “The Corean Alphabet”이라는 제목 아래 한글 자모의 음가 및 음운 변화에 대하여 4면에 걸쳐 자세히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활용하여 한국인에게 한국어를 배울 때에 필요한 조언을 덧붙였다.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되는 본문(어휘부)은 그림1-에서 보듯이 표제명 “Corean Words and Phrases”로 시작한다. 본문은 모두 369면으로, 각 면은 한 단으로 되어 있으며 상단을 구별해 가운데에 해당 면에 나오는 첫 표제어의 앞 세 글자를 명시하였고 쪽번호를 입력하였다. 본문(어휘부)의 체계 및 내용은 III장과 IV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Ⅲ. 표제어 분석

1. 표제어 계량 및 구성 정보 항목

하지(1902)의 표제어는 알파벳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자모별 표제어 수 및 표제어의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총 표제어의 수: 2,659(+병렬표제어 10)개

A: 65, B: 100(2), C: 122(1), D: 71(1), E: 69, F: 115, G: 87, H: 114,
I: 102, J: 21(1), K: 29, L: 133, M: 156, N: 59, O: 86, P: 251(1), Q:
24, R: 208, S: 381(1), T: 167, U: 80(1), V: 68(1), W: 129(1), X: 0, Y:
15, Z: 7.

(2) ㄱ. **Abbot** Choo-jang seung, 주장승

ㄴ. **Ache, Pain** Ap'poo-tah 압흐다 or 압하 ……

하지(1902)에 등재된 표제어는 모두 2,659개이다. 이들 표제어 중 14개는 (2-)처럼 동의어를 병렬하였다. 이 중 별도의 표제어로 다시 등재된 4개를 제외하고 병렬 등재된 10개만을 더하면 표제어의 수는 총 2,669개가 된다. 하지(1902)의 표제어를 동시대에 간행된 5종의 영한사전의 표제어와 각각 비교하여 공통으로 등재된 표제어의 수와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⁹⁾

9) 표2에서 언급한 5종의 영한사전의 서지사항은 아래와 같다.

언더우드(1890): H. G. Underwood, 「Part II. An English-Korean Dictionary」, 『韓英字典한영자전(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1890,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스콧(1891): James Scott,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존스(1914): G. H. Jones, 『英韓字典영한자전(An English-Korean Dictionary)』(1914,

표2-하지(1902)의 개화기 영한대역사전과의 공통 표제어 비율¹⁰

| | 언더우드(1890) | 스콧(1891) | 존스(1914) | 게일(1924) | 원한경(1925) |
|---------|-------------------|-------------------|-------------------|-----------------|-------------------|
| 공통표제어 | 2,405 (90.11%) | 2,435 (91.23%) | 1,184 (44.36%) | 543 (20.34%) | 2,538 (95.09%) |
| 동일어근표제어 | 29(1.08%) | 19(0.71%) | 109(4.08%) | 220(8.24%) | 25(0.94%) |

각 사전별로 하지(1902)와 공통으로 등재된 표제어의 비율을 살펴보면 하지(1902)에 등재된 표제어의 90% 이상이 언더우드(1890), 스콧(1891), 원한경(1925)에 표제어로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하지(1902)의 표제어가 존스(1914)와 게일(1924)에서 표제어로 등재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존스(1914)와 게일(1924)의 사전 편찬 목적과 관계가 있다. 두 책의 서문을 참고로 하면, 존스(1914)는 일상에서의 회화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게일(1924)은 신조어 및 근대적 용어만을 소개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¹ 이는 하지(1902)의 편찬 목적과 상반되어 두 사전과 하지(1902) 사이에 공통 표제어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표제어는 (2)에서처럼 글자를 진하게 하여 기술부와 구분해 알아보도록 했다. 대부분의 표제어는 품사 정보를 명사적으로 밝히는 대신, 표제어와 부정사, 관사 등을 병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품사를 제시한다. 그 예를

Tokyo, Japan: Kyo Bun Kwan).

게일(1924): J. S. Gale, 『三千字典(Present day English-Korean: Three Thousand Words)』(1924,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원한경(1925): Underwood, Horace Grant & Underwood, Horace Horton,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1925,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 10 위의 수치는 각 사전과 하지(1902)에 공통으로 등재된 표제어의 수를 계량한 다음, 하지(1902)에 실린 전체 표제어(2,669개) 중 공통 표제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인 것이다. 동일어근 표제어는 각각의 사전에 실린 표제어가 하지(1902)에 등재된 표제어와 어근은 동일하나 품사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 11 황호덕·이상현(2011), 위의 논문, 50쪽.

기술부의 대응어와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 (3) ㄱ. Ants 키암이, Adult, An 어른, Back, The 등, 등어리, 뒤, 허리
ㄱ'. Barley 보리, God 턴쥬: 하늘님, Anxiety 걱정, 녀너호오
- ㄴ. Answer, To 뒤답호오, 뒤답호여라, 답장
- ㄴ'. Ache, Pain 압흐다 or 압하 ……
- ㄷ. Absent, To be 업소 or 업다 ……
- ㄷ'. Advantageous 유익호오

(3)은 명사, 동사, 형용사 표제어의 예로, 대부분의 표제어에서 (3ㄱ, ㄴ, ㄷ)과 같이 간접적으로 품사 정보를 드러낸다. 명사는 (3ㄱ)과 같이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여 가산명사의 뒤에 관사나 복수형 등을 병렬함으로써 명사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반면 불가산 명사나 고유명사, 추상명사는 (3ㄱ')과 같이 표제어만으로는 품사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동사와 형용사 표제어는 대부분의 경우 (3ㄴ)과 (3ㄷ)과 같이 각각 To와 To be를 명기함으로써 품사 정보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품사 정보 제공 방식은 언더우드(1890)와 비교하여 체계면에서 후퇴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책의 편찬 목적을 언어의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실생활에서의 간단한 의사소통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모든 표제어에 품사를 기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표제어의 유형 분류

1) 언어 단위 및 품사별 분류

먼저 하지(1902)의 표제어를 언어 단위 별로 구분하면 크게 단어 단위의

표제어와 구 단위의 표제어로 나눌 수 있다. 단어 단위의 표제어는 전체 표제어 중 2,614개로 98%에 이른다. 이들을 품사별로 분류하고 동시대에 간행된 5권의 영한사전 표제어의 품사별 비중을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¹²

표3- 하지(1902)와 개화기 영한대역사전 표제어 품사별 비율

| | 하지(1902) | 언더우드(1890) | 스콧(1891) | 존스(1914) | 게일(1924) | 원한경(1925) |
|-----|--------------|--------------|--------------|--------------|--------------|--------------|
| 명사 | 52.2%(1,361) | 51.1%(3,503) | 48.3%(4,452) | 77.6%(5,065) | 93.2%(2,523) | 58.9%(8,463) |
| 동사 | 27.2%(710) | 29.2%(2,001) | 27.1%(2,502) | 10.0%(655) | 3.4%(93) | 22.7%(3,267) |
| 형용사 | 14.9%(389) | 19.6%(1,345) | 20.7%(1,909) | 12.1%(789) | 3.1%(83) | 17.6%(2,579) |
| 기타 | 5.6%(147) | 0.1%(7) | 3.9%(364) | 0.3%(18) | 0.3%(7) | 0.5%(70) |

표3을 보면 하지(1902)에 등재된 표제어의 품사별 비율이 언더우드(1890), 스콧(1891), 원한경(1925)과 유사하며, 존스(1914), 게일(1924)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전의 편찬 목적이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의 품사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존스(1914)와 게일(1924)은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용어나 최신 용어 등을 수집하여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전들에 비해 명사 표제어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1902)에 표제어로 등재된 구는 54개이다. 이들 구 표제어의 예와 유형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4) ㄱ. Advance, In 압흐로 ……

ㄴ. Dip out (as water) 쓰다 or 푸다 ……

12 표3의 수치는 각 사전에서 단어 표제어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량한 것으로 한 표제어에 복수의 품사 정보가 기술된 경우에는 품사의 수만큼 중복하여 세어 전체값을 정한 후 비율을 계산하였다.

- (5) ㄱ. 명사구(20): cabinet maker, egg plant ; blotting paper, a large cabinet
- ㄴ. 동사구(27): make an excuse, bid farewell; go on an errand ;
 go away, dip out
- ㄷ. 부사구(7): in advance, just now

구 표제어는 구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Advance’, ‘Dip’)를 표제어로 하여 그 단어의 앞이나(4ㄱ의 ‘In’) 뒤에 오는 성분(4ㄴ의 ‘out’)을 표제어의 뒤에 병렬하여 배치하였다. (5)에서 보듯이 구 표제어는 크게 명사구, 동사구, 부사구로 나뉘며 동사구가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2) 일반어 vs 전문어, 고유명사

하지(1902)는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일상에서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표제어를 선택하였다. 그로 인해 표제어 중에 전문어로 명시된 예도 없으며, 학명이 등장하지도 않는다. 또한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 전문어로 분류되는 예에 속하는 표제어도 많지 않아서 100여 항목 정도 발견된다.¹³ 그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ㄱ. 식물명: buckwheat, celery, elder tree, ivy, …… (29)
- ㄴ. 동물명: centipede, cod-fish, gull, leech, leopard, …… (26)

13 익명의 심사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사전에서 전문어와 일반어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았고, 전문어의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에도 굳이 여기에서 표제어를 전문어와 일반어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은 본고에서 하지(1902)의 특징을 분석할 때에 사전의 편찬 목적을 주된 요인으로 고려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1902)에는 전문어로 분류될 만한 표제어의 수가 많지 않고, 전문어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이들 표제어가 실제 교육 현장이나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가 아닌 일상 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어휘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들 단어가 표제어로 등재된 것 또한 본래의 사전 편찬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ㄷ. 의학용어: cholera, epilepsy, syphilis, liver, uterine, …… (18)

ㄹ. 종교용어: abbot, rosary, Buddha, God(틴쥬/하늘님), …… (8)

ㄱ. 기타: lead, mica, equinox, solstice, ……

(6)에서 보듯이, 식물명과 동물명이 전문어의 반을 차지하는데 속명만이 등재되어 있다. 또한 의학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어들은 대부분 병명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현대어 사전에서 전문어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하지(1902)에서는 전문어나 일반어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표제어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⁴

고유명사는 인명은 등재되지 않았고, 지명만이 발견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America, Chemulpo, China, Chinese Legation, England, France, Germany,
Japan

14 하지(1902)에 등재된 이들 단어가 당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어휘라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leopard'가 있다. 먼저 하지(1902)의 'leopard' 항목에서 표제어와 대응어, 한국어 예문만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Leopard, A 표범. 이근처에표범잇소. 어딴가면표범잡겠소. A leopard's skin, 호피. 호피한장만사오너라. 이호피잡시얼마요.

지금도 한국에서 멸종위기종이 된 표범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표범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무분별하게 포획됨으로써 멸종 위기에 이르렀다(김남신 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호랑이, 늑대, 표범의 서식분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2-4(2019), 35쪽).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하면 위의 예는 외국인이 외국인 학습자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편찬하였다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예는 하지(1902)가 개화기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이용될 만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하지(1902)에 등재된 지명은 모두 9항목으로, 국내 지명으로는 유일하게 '제물포'가 등재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배를 타고 입국할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지명은 여러 나라의 국명 및 공공 기관을 가리킨다.¹⁵

IV. 기술부 분석

하지(1902)의 기술부에는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백과사전적 기술이 상당량을 차지한다. 이는 초기 사전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하지(1902)의 기술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크게 ① 품사, ② 대응어의 발음, ③ 대응어 또는 정의문, ④ 예문, ⑤ 표제어 관련어구, ⑥ 대응어 관련 정보로 나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기술부의 각 정보 항목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¹⁶

1. 품사 정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지(1902)에서는 표제어의 품사를 명시하지는

15 표제어로 등재된 고유명사는 극히 드물지만, 기술부에 부가정보로 수록된 고유명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다. 서울로 들어가는 일곱 문(門)의 이름,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이름, 주요 항구의 이름, 궁의 이름, 각 도의 이름 등이 실려 있다.

16 윤애선, 「LEXml을 이용한 『한영사전(1911)』의 지식베이스 설계: 『한불초전(1880)』과의 통합적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87(2011), 358쪽에서는 초기사전이 언어사전과 백과사전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서 의미기술 정보구역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1902) 또한 이러한 경향을 보여 일부 표제어의 기술부에서는 의미기술과 용법, 백과사전적 정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않았으나 일부에서 품사를 밝힌 예가 나타난다.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8) ㄱ. **To** (prep) Expressed usually by a postposition. ……

ㄴ. **Move, To** 움직이다 (verb intransitive); 옮기다 (verb transitive). ……

(8ㄱ)은 한국어와 영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문법적인 특징을 기술하기 위해 괄호 안에 품사 정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영어의 전치사가 한국어의 조사에 대응되는 점을 고려하여 영어 표제어의 품사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부에 한국어에서의 용법을 설명하였다. 한편, (8ㄴ)은 표제어의 품사보다는 두 대응어의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영어 표제어를 한국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사와 관련하여 살펴볼 점은 품사가 같은 표제어를 기술할 때에 일관된 기술 방식을 취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1902) 이전에 간행된 두 사전과 함께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4- 품사별 대응어 기본형[하지(1902), 언더우드(1890), 스콧(1891)] 예

| | | 하지(1902) | 언더우드(1890) | 스콧(1891) |
|-----|---------------|------------------------------|--------------------------|---------------------------|
| 명사 | bandage | 동인것술 | 상쳐미논형겅, 형겅 | 슈건 |
| | barber | 머리깎는사름 | 머리씩논이 | 머리깎다 |
| 동사 | ache bring | 압흐다 압하 가져오녀라 가져와 가져오시오 | 압흐오 가져오오 드려오오 | 압흐다 알타 가지다 가져오다 |
| | order | 식히다 명흐다 분부흐다 | 다수리오 분부흐오 명흐오 라고흐오 래오 | 식이다 신칙흐다 부리다 분부흐다 전령흐다 |
| 형용사 | absent | 업소 업다 | 업소 아니게시오 | 업다 |
| | old | 늙다, 쇠흐다 | 늙소, 늙소, 허오, 나히만소 | 늙다, 늙다, 현 |
| 부사 | exceedingly | 대단히 과히 미우 심히 몹시 | 과히 7장 극히 심히 금직이 펍 대단이 | 과히 심히 극히 7장 대단이 |
| | before | 그전에 문져 전에 | 전에 문져 압히 압흐로 면전 | 전에 문져 압히 |

명사 표제어를 기술할 때에 하지(1902)는 사람을 가리키면 '~는 사람', 물건을 가리킬 때는 '~는 것'과 같이 구 단위의 대응어를 제시한 예들이 눈에 띈다. 이후 'bandage'는 원한경(1925)에서 '붕디'로, 'barber'는 존스(1914), 게일(1924), 원한경(1925)에서 공통적으로 '리발스'에 대응되어 단어 단위의 한자어로 번역된다. 반면 초기의 영한사전인 하지(1902)는 아직 신문물을 가리키는 한국어 용어가 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영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구 대응어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사와 형용사 표제어의 대응어를 살펴보면, 언더우드(1890)와 스콧(1891)은 각각 '하오'체의 평서형 종결어미, '해라'체의 평서형 종결어미를 기본형 어미로 택하여 일관되게 하나로 기술했다. 반면 하지(1902)는 책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용언의 기본형 어미를 선택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즉, 용언의 기본형이 알파벳 'O'로 시작하는 표제어를 기준으로 전반부에서는 '해라'체와 '하오'체의 평서형 종결어미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일부 동사의 경우는 명령형 종결어미를 기본형 어미로 택하기도 하였다. 반면, 책의 후반부에서는 용언의 성격에 관계 없이 모두 '해라'체의 평서형 종결어미를 기본형 어미로 택하였다.¹⁷ 부사 표제어는 한국어로 부사격조사나 부사파생어미가 결합한 형태가 대응되어 앞서 간행된 두 사전의 기술 방식과 동일하다.

2. 발음 정보

하지(1902)의 기술부에서 동시대에 편찬된 영한대역사전과 다른 점 중

17 이러한 기술 양상의 차이가 초판본에서의 용언의 기본형 기술과 관련이 있는지, 또는 용언 기술에 여러 명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후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나는 영어 표제어를 한국어로 기술하면서 대응어의 로마자 표기와 한글 표기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보통의 대역사전에서는 표제어의 발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책에서는 기술부에 나타나는 대응어의 발음 정보를 밝혔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동시대에 편찬된 한영(영한) 대역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하지(1902)만의 특징으로 이와 같은 기술 방식은 본문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며 대응어뿐만 아니라 예문에서도 각 어구나 문장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병렬하여 제시하였다.¹⁸ 이 절에서는 하지(1902)의 로마자 표기에서 보이는 특징을 당대의 한국어 음운과 음운 현상, 음절 표지, 어절 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운 및 음운 현상

먼저 하지(1902)의 서두에 수록된 한국어-영어 대응표를 『한불사전』(1880), 『한영사전』(1897)과 비교하여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5-한글 자모 로마자 표기법[하지(1902), 『한불』(1880), 『한영』(1897)]

| | 모음(Vowels) | | | 자음(Consonants) | | | 이중모음(Diphthongs) | | | |
|---|------------|----|------|----------------|-----|-----|------------------|----|---------|-----|
| | 하지(1902) | 한불 | 한영 | 하지(1902) | 한불 | 한영 | 하지(1902) | 한불 | 한영 | |
| 아 | ah | A | a | ㄱ | k | K | k g | 애 | ai | AI |
| 야 | yah | IA | ya | ㄴ | n | N | n l | 야 | | YAI |
| 어 | ö | E | yö ú | ㄷ | t | T | t d | 이 | äi | ÄI |
| 여 | yö | IO | yö | ㄹ | r l | R L | l n | 에 | ay | EI |
| 오 | o, aw | O | o | ㅁ | m | M | m | 예 | yä, yea | YEI |

18 하지(1902)보다 앞선 시기에 외국인에 의해 간행된 사전 중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는 『한불사전』(1880), 『한영사전』(1897)이 있다. 『한불사전』에서는 소리보다는 글자를 중시한 전자법(轉字法)을 택하여 본문의 표제어를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한영사전』은 표제어인 한국어의 발음을 로마자 표기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서두 부분에서 한글 자모의 로마자 표기를 표로 제시하였다(한성우,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한국학연구』 58(2020), 236쪽).

| | | | | | | | | | | | |
|---|---------|--------|------|---|---------|-----|------|---|----------|------|----|
| 요 | yo, yaw | IO | yo | ㅅ | p | P | p b | 의 | eui | EUI | |
| 우 | ou | OU | (y)u | ㅅ | s t | S T | s t | 와 | oa, wah | OA | wa |
| 유 | you | IOU | yu | ㅇ | mute ng | NG | ng | 왜 | way | OAI | |
| 으 | eu | EU | eu | ㅈ | ch | TJ | ch j | 외 | oi, wee | OA | |
| 이 | ee | I | i | ㅈ | 'ch | TCH | ch' | 위 | waw | OUE | wö |
| 으 | a or ah | Ä EU A | a | ㅋ | 'k | HK | k' | 웨 | way | OUEI | |
| | | | | ㅌ | 't | HT | t' | 위 | oui, wee | OUI | |
| | | | | ㅍ | 'p | HP | p' | 위 | youee | | |
| | | | | ㅎ | h | H | h | | | | |
| | | | | ㄱ | g | KK | g tg | | | | |
| | | | | ㄷ | d | TT | d td | | | | |
| | | | | ㅃ | b | PP | b tb | | | | |
| | | | | ㅆ | ss z | SS | s ts | | | | |
| | | | | ㅈ | j | TTJ | j tj | | | | |

위의 표를 참고로 하여 모음의 로마자 표기를 먼저 살펴보면 하지(1902)는 한국어의 소리보다는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중모음을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애’나 ‘에’는 각각 모음자 ‘ㅏ’, ‘ㅑ’와 ‘ㅣ’의 결합으로 보아 이중모음으로 분류하였고, 이중모음인 ‘야, 여, 요, 유’는 기본모음에 포함했다. 하지(1902)에서 ‘야, 여, 요, 유’를 여타의 단모음자와 함께 분류하여 배열한 것은 『훈몽자회』(1527)의 범례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모음자 배열 순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불자전』(1880)에서도 배열 순서는 다르지만 같은 기준으로 모음을 분류하였다. 하지만 『한불자전』(1880)에서는 ‘으’를 제외한 한글 모음자 각각에 로마자를 하나씩만 대응하였지만 하지(1902)에서는 한글자모의 글자와 소리를 모두 고려하여 로마자 표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모음이 두 개의 로마자에 대응되는 예가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음운 표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의 소리를 인식할 때의 인상 정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자음의 로마자 표기를 살펴보면 하지(1902)는 음절 초와 음절

말에서 소리가 달라지는 자음을 위치에 따라 구별하여 로마자로 대응하였지만, 평음 ‘ㄱ, ㄷ, ㅂ, ㅈ’은, 『한영사전』(1897)에서 위치에 따라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분하여 로마자로 대응한 것과 달리, 모두 무성음 ‘k, t, p, ch’에 대응하였다. 반면 경음은 대부분 유성음의 자질을 지닌 로마자로 표기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한국인이 외국어의 유성음을 경음으로 인식하여 발음하는 것처럼 외국인에게도 경음이 유성음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같은 대응은 『한영사전』(1897)에서도 발견된다. 『한영사전』에서는 경음 ‘ㅅ, ㅆ, ㅈ, ㅊ’을 각각 ‘유성음’과 ‘t+유성음’에 대응하였다. 전자는 소리를 중시한 표기이고, 후자는 글자를 고려한 표기라고 볼 수 있다. 하지(1902)는 이 중 전자를 택하여 글자보다는 소리를 중시하여 로마자 표기를 정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하지(1902)에서는 서두에서 제시한 한글 자모 로마자 표기법과 본문에서의 로마자 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9) ㄱ. 비음동화: Sing-yum 식념, Chosim um-nan sahran, 조심업는사름
 ㄴ. 두음법칙: Yunn-say; Yunn-ghee; Yunn-chee; 년세; 년기; 년치
 ㄷ. 유음화: Gool-loon mool kadjaw onerah 쓸는물좨가저오너라
 ㄹ. 구개음화: Cha-junn 즈년, T'chun-ju 턴쥬
 ㅁ. 어중유성음화: Hway-gay hah-o 회게호오, Ha-jee Mahra호지마라

(9)의 예는 모두 한글 표기와 그 발음을 나타내는 로마자 표기가 서두에서 보인 로마자 대응표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제어에 대응된 한국어의 한글 표기와 다르게 로마자 표기에서는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여 그 발음을 보였기 때문이다.¹⁹⁾ (9ㄱ-ㄹ)은 한국어에서 일어나는 주된

음운 현상으로 한글 표기는 당대의 일반적인 표기 경향을 반영하였지만, 로마자 표기를 통하여 현실음을 보여준다.²⁰ 한편, (9ㄱ)은 하지(1902)가 외국인 편찬자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만든 사전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9ㄱ)은 무성음이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하는 현상을 발음 표기에 반영한 것으로 한국어에서 설정되는 음운 현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음을 유성음과 무성음으로 구별하는 음운 체계를 가진 영어 화자의 입장에서 한국어 자음을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음절과 어절 표지

하지(1902)의 로마자 표기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은 음절을 구분하는 표지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0) ㄱ. Chong-ghee 종기, mee-ree 미리, ap-'poo-tah 압흐다
 ㄴ. poosirrum 부스럼, Tahree 다리, upso 업소

서두에서 하지는 각 음절의 더 나은 발음을 위하여 붙임표를 사용했음을 밝힌다. 하지만 (10ㄴ)에서 보듯이 모든 음절을 붙임표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하지(1902)에서 로마자 표기가 한국어를 소리 내어 발음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듯, 붙임표 또한 붙임표가 없을 경우, 음절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워 발음이 달라질 수 있는 위치에서만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0ㄱ)처럼

19 (9)는 서두에서 언급된 음운 현상을 반영한 표기의 예만을 언급한 것이며, 실제 문헌에서는 그밖의 음운 현상을 반영한 표기도 다수 발견된다.

20 이때 (9ㄱ)의 '없는', (9ㄴ)의 '끓는'에서 비음화나 유음화에 앞서 자음군단순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을 책에서 찾아볼 수 없어 외국인 화자인 하지가 당대의 표기법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모음이나 자음이 연달아 나타나는 경우 그 음절 경계를 붙임표로 표시하였다. 반면 (10ㄴ)은 붙임표 없이도 발음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지(1902)의 한글 표기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지만 로마자 표기에서는 어절 사이를 빈칸 띄어쓰기로 구분하였다. 로마자 표기에서 보이는 띄어쓰기의 경향을 정리하여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1) ㄱ. Nay-gah Pa-mawk-eul 내가밭목을, hoo-ay 후에
 ㄱ'. Hannah man isso 만나만잇소, chaw gut taw cho-so 저것도도소,
 Keu sahran hah-go, naw hah-go 그사람 호고너 호고, E'-chaik gwah
 chaw'chaik-ee 이척과더척이
 ㄴ. Hway-gay hah-o 회게 호오, Cat-jee-an han-yah 낫지안하나
 ㄴ'. Poun-haho 분 호오, Kway-rop-gay haho 괴롭게 호오
 ㄷ. Moo-saw-woh hal-got 무서워홀것, hal-soo-upso 홀수업소 E chip
 chee-oon-jee-gah 이집지은지가
 ㄷ'. Nai-gah hal gussio 네가홀거시오, Ee-'chack-un han kil-ee myet
 gwan-ee-o? 이책은한기리몇판이오?
 ㄹ. Kadjaw-kaho 가져가오, gooppir-ridgy-malgaw, 꾸부리지마라
 ㄹ'. sai-yaw poarrah 세여보아라, moo-saw-woh mahra 무서워마라

(11ㄱ)은 조사의 띄어쓰기 경향을 보인 것으로 격조사인 '이/가', '을/를'은 선행하는 체언에 붙여 쓰지만 보조사 '만', '도'와 공동격조사 '와/과', '호고'는 띄어 썼다. 띄어 쓴 조사의 공통점은 한국어 문장의 조사와 영어 문장의 단어가 일대일로 대응된다는 것이다. 즉, 공동격조사 '와/과', '호고'는 영어 단어 'and'에, 보조사 '만'과 '도'는 각각 'only', 'also'에 대응한다. 한편, 접미사 '하다'(11ㄴ), 의존명사(11ㄷ), 용언+용언의 띄어쓰기(11ㄹ)를 살펴

보면 단위성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비율이 붙여 쓰는 비율보다 높지만 나머지의 예에서는 비슷한 비율로 띄어 쓰는 예와 붙여 쓰는 예가 모두 나타난다. 이렇게 한 문헌 안에서 (11ㄴ-ㄷ)의 예와 같이 띄어쓰기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은 동시대에 외국인이 쓴 다른 책에서도 발견된다.²¹

3. 의미 기술(대응어 및 정의문) 정보

1) 의미 기술 유형

먼저, 하지(1902)의 의미 기술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2) ㄱ. 일대일 대응: 70.7%(1880)

ㄱ-1 **Abbot** 주장승

ㄱ-2 **Ginseng** 인삼 The wild variety found on mountains [...] 산삼.
The cultivated variety 가삼. Two varieties of the last prepared in different ways 곡삼; or 홍삼.

ㄴ. 일대다 대응: 28.1%(747)

ㄴ-1 **All** 다 모도 도모지

ㄴ-2 **Edge, The** 가장자리(of a table, etc) 날(of a knife, etc) 가(of a river, etc) 모서리(of a book, etc)

21 양명희,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2013), 200-201 쪽에서는 『언문말책』(1887)과 『한영문법』(1890)을 통해 외국인의 띄어쓰기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 문헌들은 영어 단어에 따라서 조사의 띄어쓰기 경향이 달라지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는 영어 단어를 기준으로 하여 띄어쓰기를 한 결과라고 보았다. 또한, 한 문헌 안에서도 같은 형태소나 단어가 서로 다른 띄어쓰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예들은 대부분 한글 맞춤법이 제정된 후에도 띄어쓰기의 변천을 보여온 것들이라고 하였다.

ㄴ-3 **Farm** Government property 궁답, Farms attached to a Buddhist monastery 불답, Property devoted to the maintenance of confucianism 교답. A farm let out on condition that the tenant maintains an ancestral grave for a distant owner 묘답.

ㄷ. 영어 기술문: 1.2%(32)

ㄷ-1 **Beer** Beer is practically unknown to the Coreans, consequently there is no proper word in the Korean vocabulary which one can use in reference to "Bottled Beer." Coreans in foreign employ often know it under the name of "Beer-jew."

ㄷ-2 **If** A condition is generally expressed in Corean by a suffix to the verb in its various tenses 먼 or 거든. The first of these is simply conditional, the latter contains the expression of a doubt.

하지(1902)에서 나타나는 의미 기술의 유형은 (12)에서처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12ㄱ)처럼 영어 표제어와 기술부의 한국어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 둘째, (12ㄴ)처럼 영어 표제어에 대응하는 한국어가 여러개인 경우, 셋째, (12ㄷ)처럼 영어 표제어에 대응할 만한 한국어가 없어서 영어로 그 의미를 기술하는 경우이다. 이중 첫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첫 번째 유형에서도 (12ㄱ-2)와 같이 대응어를 대표로 하나 제시한 다음 부연 설명과 함께 이 표제어에 대응하여 쓸 수 있는 그 밖의 한국어 어휘를 더 언급하기도 한다. 둘째 유형과 같이 하나의 표제어에 복수의 한국어가 대응할 때에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영어 표제어에 복수의 한국어가 부연 설명 없이 대응되는 경우(ㄴ-1)와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한국어가 달라짐을 설명한 경우(ㄴ-2, 3)가 그것이다. 셋째 유형은 표제어가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응되는 한국어가 존재하지 않거나(ㄷ-1),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문법적 차이가 커서 영어와 한국어를

대응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때에(ㄷ-2) 취하는 기술 방식이다.

2) 의미 기술 정보

하지(1902)가 표제어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과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3) ㄱ. **And See Also**

- ㄴ. **Care, Please take** 조심 호오, 조심 호시오(polite) / **Correct**(It is so) 올치, 그러치(low)
- ㄴ'. **Age Honorific** 년세; 년과; 년치 Low forms 나히; 설
- ㄷ. **Blanket** 니불(Native) 담니불
- ㄷ'. **Carpet** (foreign) 담자리
- ㄷ''. **Cook, A** 곡상(A word of Japanese origin), 숙슈.
- ㄷ. **Sparkle, To** 반작반작하다(of a small thing); 번적번적하다(of a great thing).
- ㄷ'. **Be, To** 잇소 잇다(Always occurring at the end of Sentence)

첫째, (13ㄱ)과 같이 표제어와 동의 관계에 있는 단어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됐을 때, 의미기술을 반복하는 대신 'See' 뒤에 동의어인 표제어를 제시하여 기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는 언더우드(1890)에서도 보였던 기술방식이다. 둘째, (13ㄴ, ㄴ')과 같이 높임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응어의 종결어미에 따라 높임법의 위계가 달라질 때에는 'polite'와 'low'로 구별하였으며 대응어가 높임과 관련한 어휘일 때에는 'honorific'과 'low form'으로 그 자질을 밝혔다. 또한 드문 예이기는 하나 (13ㄷ, ㄷ', ㄷ'')과 같이 어원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13ㄷ, ㄷ')과 같이 대응어의 문법이나 어감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대부분 표제어보다는 대응어를 옆두에 둔 것으로 하지(1902)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을 독자로 상정한 것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다.

4. 예문

하지(1902)에서는 표제어에 대응된 한국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표제어에서 예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예문의 수는 모두 2,300여 개에 이른다. 하지(1902)에서 제공된 예문을 표제어와 함께 유형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4) ㄱ. **Afraid** Don't be afraid, Moo-saw-woh mahra, 무셔워마라,²² I am afraid 뭉우무셔소, Are you afraid? 무셔우냐?
ㄴ. **Afternoon** Come tomorrow afternoon 닉일오후에오너라 Don't come tomorrow 닉일오후에오지마라
ㄷ. **Age** what is your age? 나히얼마오 (To children) 몇설먹엇느냐 / Go away Don't go away 어딴가지마라 or 나가지마시오(polite)
ㄹ. **Ache** My legs are aching 다리압흐다. My head aches badly 머리몹시 압흐다
ㄷ'. **Beef** Buy some beef 소고기줍사오너라 This beef is not fresh 이소고기상한것슨아니라 How much beef have you bought? 소고기몇근사왓소 How much a pound is this beef? 이소고기훈근집시얼마냐
ㅁ. **Anxious** Are you very anxious? 걱정만히잇느냐 I am very anxious. 내가걱정만히잇소 Why are you anxious? 웨걱정만히잇느냐

22 이하 예문에서 영어 예문의 이탤릭체, 한국어 예문의 로마자 표기는 생략하였다.

하지(1902)의 예문은 모두 (14ㄱ)처럼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의 로마자 표기, 한국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어의 예문이 하나일 때에는 명령형 문장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 표제어에 둘 이상의 예문을 보일 때에는 주로 (14)와 같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14ㄱ)처럼 한 표제어 아래 문장 종결법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과 같은 다양한 문장을 보여준다. 둘째, (14ㄴ)처럼 동일한 표제어를 사용하여 긍정문과 부정문을 보여준다. 셋째, (14ㄷ)처럼 동일한 영어 문장을 높임법에 따라 여러 개의 한국어 문장으로 보여준다. 넷째, (14ㄹ)처럼 표제어와 공기하는 단어와 계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활용하여 예문을 제공하거나 (14ㄹ')과 같이 표제어가 사용될 만한 환경을 설정하여 그에 따른 예문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4ㅍ)과 같이 표제어가 들어간 예문을 대화 형식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 중 (14ㄱ-ㄷ)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하나의 표제어 아래 다양한 형식의 예문을 제공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을 돕는 데에 기여하도록 사전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5. 표제어 관련어구 정보

하지(1902)의 표제어는 3,000개가 채 못 되어 소사전 혹은 어휘집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못하지만 기술부에도 표제어 수에 비견될 만큼의 영어 단어 또는 구 표현이 상당수 등재되어 있다. 실제 기술부에서 새로이 소개된 단어는 250여 개, 구 표현은 1,600여 개로 이 둘을 합치면 이 책의 표제어의 70%에 달한다. 표제어 관련어를 품사별로 정리하여 표제어와 함께 보이면 아래와 같다.

(15) ㄱ. 명사(175개)

Rob, To {…} A robber 도적놈.

Mother, A 어머니; 자당 Grand-mother, 할머니 or 조모. Mather-in-Law, 식어머니.

ㄴ. 동사(43개)

Fast 밥비; 급히; 어서. {…} To fast from food, 굶다.

Sentence, A {…} To sentence 처결하다 or 처단하다.

ㄷ. 형용사(31개) **Respect, To** 공순하다. To be respectful 온공하다.

ㄹ. 부사(5개) **Wide, To be** 넓다. Widely 넓게 or 넓이

위의 예에서 보듯이 표제어 관련어의 품사 비율도 전체 표제어와 마찬가지로 명사>동사>형용사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관련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표제어와 같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나 합성어로, 이러한 유형은 품사별로 골고루 나타난다. 둘째 (15ㄴ)의 'Fast'처럼 철자가 동일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철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를 밝힌 경우이다.

표제어 관련구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영어 표제어와 관련한 관용구이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6) ㄱ. **Back, The** {…}

To come back, To-rah onerah 도라오너라, He or she has not come back yet, {…} 아직도오르지아니했소 ……

ㄴ. **Present, A** 선물 or 숭물. To make a present Sun-sah-hah-tah 선스하다. (These words are only used of presents made amongst equals).

……

(16)에서 관용구와 관용구를 기술한 방법을 보면 영어 관용구 뒤에 대응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보이고 대응어 또는 정의문, 그리고 예문까지 제시했을 수 있다. 이는 이 사전의 표제어 기술 방식과 동일하다. 특히 (16ㄱ)과 같이 표제어 아래 줄을 바꿔 관용어를 진한 글씨로 제시하고 기술한 예도 유일한 예이지만 발견된다. 대부분의 관용구는 (16ㄴ)과 같이 표제어의 기술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관용어 기술은 그 자체로 표제어로서 완성된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현대 사전의 부표제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²³ 하지만 아직 완성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초기의 사전에서 표제어와 부표제어를 구분할 만큼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기술부에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 하나의 예이지만 (16ㄱ)과 같은 예를 통해 부표제어를 표제어와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의 표제어 관련구는 앞선 유형과 달리 영어 표현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를 기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7) **Shoe, A** 메토리(of hemp); 집신(of straw); 나막신(of wood); 신(of leather).
A superior form of me'tor-ree made of paper and finest hemp 탁골치.
another variety, woven of the best hemp 슝곱박이. silk ornamented shoes 태스혜. another style of ornamented shoes 당혜. Women's ornamented shoes 운혜. Rain shoes 진신.

23 남길임, 「부표제어의 범위와 유형」, 『한국사전학』 9(2007), 143쪽에서 주표제어 아래에 기술부와 구별하여 별도로 제시되어 주표제어를 구성 성분으로 하는 복합적인 언어 단위를 '부표제어'라고 하였다. 부표제어로 주로 선정되는 언어 형식으로는 어근에 '-하다'나 '-되다'가 결합한 파생어와 고빈도의 자유 표현, 언어, 관용 표현, 속담 등이 있다.

(17)의 표제어 'Shoe'의 기술부에서는 한국어 대응어 외에도 재료나 용도에 따른 다양한 신의 종류가 한국어로 소개되어 있다. 이때 이에 대응하는 영어 표현은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기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예는 사전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16)과 같은 유형에 비해 더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예를 모아 표제어와 기술부의 위치를 바꾸어 정리하면 한영 대역 어휘집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6. 대응어 관련 정보

1) 언어적 정보

먼저 기술부의 대응어와 관련하여 부연기술된 언어적 정보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18) ㄱ. **Catch, Seize, To** 잡소, 잡아

N.B-the word chapso is also used as a polite term in reference to eating and smoking, e.g. "Take your food," "chin-jee chapso." "Please have a smoke," "tambay chom chapso," etc., etc.,

ㄴ. **Boat, A Pa*** or Pai, 빅 [...]

*Pa pronounced like pa in paper.

(18ㄱ)에서는 '잡소'의 동철이의어로 "catch"를 의미하는 단어 외에도 "(음식을) 먹다"를 의미하는 '잡소'가 있음을 기술부 아래에 'N.B.'라는 표지와 함께 부연기술하였다. (18ㄴ)은 한국어 발음과 관련한 기술로 로마자에 별표를 한 후 그 로마자의 음가를 영어 단어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예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한 것이라 보인다.

2) 백과사전적 정보

마지막으로 하지(1902)의 기술부는 상당한 양의 백과사전적 정보도 제공한다. 이들은 나름의 형식을 갖추고 기술되어 있어 그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기술부의 마지막에 대응어와 관련하여 한 어휘장에 속하는 한국어 단어를 나열한 것이다. 이러한 예를 하나만 보이면 아래와 같다.

- (19) **Hair** 머리털. [...] The several kinds of hair combs are A large tooth comb 어레빗. A fine comb 촘빗; A small tooth comb carried in the pocket 면빗. Hair pins(used by women) 빈혀. (The several kinds of women's pins: A bamboo-like pin made of silver 죽절. A phoenix-shaped pin made of silver and used at marriages 석뉴즘; A phoenix-shaped gilded pin 봉즘; A flower-like pin made of silver 과즘; A pin made of maladrite 비취즘; A silver pin 은즘; An amber pin 밀화즘; A silver pin shaped like an ear spoon 귀개; A red coral pin 산호즘; A mourning pin made of black horn 흑각빈혀. Men's hair pins made of wood, horn, gold, silver, amber and coral 동곶).

(19)에서 보듯이 표제어인 'Hair'를 '머리털'이라 기술한 후 머리를 빗고 꾸미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인 한국의 머리빗과 장신구 종류를 나열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의 어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아래와 같은 예들이 있다.

- (20) Chief Harbours in Corea, Corean Hats, Corean Meals, Corean Nights, Chief Rivers in Corea, Divisions of the Month, Earthenware Vessels,

Names of Fingers, Names of the Months, Numeratives, Provinces in
Corea, Seven Gates to the City of Seoul, Relations, The Greater Korean
Holidays, The Kinds of Hair Combs, The Kinds of Hair Pins(for women),
The Kinds of Paper

두 번째 유형에는 표제어와 기술부 아래에 'Note'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대응어와 관련한 한국의 사회 문화적 정보를 기술한 것이다.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21) **Kalendar, A** 달력; or 칙력. A European kalendar 양역. A kalendar
according to Chinese reckoning 음역.

Note:-Corean kalendars are printed on single sheets and in book form,
compiled at the Royal Observatory in Seoul and published during the
winter solstice. The kalendars contain the name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cycle, months and days; seasons into which the year is divided
and natural phenomena as they occur. These seasons number twenty-
four and mark the times when rain, snow, dew, heat and cold are
expected, when insects begin to move and grain comes into full car.
The kalendar also records times of the sun's rising and setting and
favourable dates on which to commence certain labours or obsevances.
There are favourable days on which to begin the building, repairing
and thatching of a house; for the celebration of a marriage or for
a funeral; when a boy should begin his studies; a man should start
of a journey or when an arrival at the house brings good fortune.
There is also a record of dates on which the Emperors of Corea where
born and when they died, and reference to corresponding days in
European kalendars.

(21)에서 보듯이 한국의 달력에 관한 정보를 'Note'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기술한 표제어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2) Elder, Electric railway, Ginseng, Kalendar, Marry, Name, Present, Rank, Sacrifice, Slave, Sorcery,

마지막 유형은 특별한 표식 없이 대응어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23) ㄱ. **Button, A** 단추 (ordinary buttons).

Native officials and persons of high rank usually wear, behind the ears, a distinctive badge in the shape of a button which denotes their rank or social standing. There are various kinds of these buttons, the chief of which are the plain jade, the carved jade, the plain gold, and the ornamented gold button. The plain jade button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and is worn by the Emperor and officials of the 1st rank. the next is the plain gold button also worn by officials of the 2nd rank, whilst the card jade button is worn by officials of the 3rd rank. Wearers of the plain jade and plain gold buttons are addressed as "Tai-gam"—the others as "Yung-gam."

ㄴ. **Interest** 벌리; 변전. {...} (There are no banks in Corea except those introduced by foreigners. Coreans put out their money amongst trading firms usually at the rate of sixty per cent per annum. Interest however varies according to the amount deposited

and the locality. Interest is generally reckoned by months, but if a very large sum is in question interest is reckoned by the day.)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3ㄱ)에서는 한국 문화에서 단추의 모양과 단추가 상징하는 계급의 차이를 기술하고 있으며 (23ㄴ)에서는 한국에서의 금전 거래 방법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대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활사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부가정보를 기술한 표제어로는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24) Butter, Button, Cushion, Farmer, Gentleman. Grave, Green-house, Inn, Interest, Kite, Lye, Mangle, Oath, Otter, Paint, Pedler, Picnic

지금까지 살펴본 대응어 관련 정보는 이 책의 표제어에서도 밝혔듯이 한국에 일시적으로 방문했거나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역사, 문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개화기에 간행된 영한대역사전 중 하나인 하지(1902)의 체재 및 본문(어휘부)에서 제공된 정보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하지(1902)의 표제어 선정 및 기술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은 이 책이 철저하게 편찬 목적과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편찬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제명과

머리말에서도 드러나듯이 하지(1902)는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 사용자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간단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어휘와 표현을 실었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응어를 기술할 때에도 높임법이나 문장 종결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종결어미나 어휘를 보여주었다. 또한 동시대에 간행된 영한(한영) 대역사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문 또한 높임법과 문장 종결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하지(1902)가 사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한국어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뿐만 아니라 하지(1902)는 학문의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한국어의 발음과 관련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발음 정보는 생략하였지만 대응어와 관용어, 예문에서 보이는 모든 한국어의 발음 정보를 로마자로 표기하여 소리내어 말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물론 외국인이 외국인 학습자를 위해 편찬한 책이라는 점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한국어의 발음 및 문법의 기술에서 학문적인 정밀함이 떨어지며 외국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의 한국어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어 음소나 음운 체계에 대한 정확한 관찰보다는 외국인이 들을 때에 느끼는 인상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모국어로서의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때에 경험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용될 만하다.

하지(1902)는 영한사전이지만 한국어 어휘에 대한 기술도 상당히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다. 표제어 관련어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표제어와 관련하여 언급할 만한 다수의 한국어 단어를 수록하였으며, 특히 이때, 한국어

단어의 의미를 영어로 기술한 정의문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영어 기술과 한국어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 정리하면 어휘집 규모의 작은 한영사전으로 쓰일 만하다. 이들 기술을 당대에 편찬되었던 다른 한영사전과 비교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지(1902)는 언어사전이지만 초기의 사전이 그랬듯, 백과사전적인 정보를 기술하는 데에 할애한 지면이 상당하다. 표제어나 대응어의 한국어와 관련한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표제어가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형식을 차용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의 생활사와 관련한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외국인이 바라본 한국어의 모습이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Gale, James Scarth, 『韓英字典한영자뎨(A Korean-English Dictionary)』. Yokohama: Kelly & Walsh, 1897.
- Gale, James Scarth, 『三千字典(Present day English-Korean: Three Thousand Words)』.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4.
- Hodge, John W. *Corean Words and Phrases: Being a Handbook and Pocket Dictionary for Visitors to Corea and New Arrivals in the Country(2nd Edition)*. Seoul: The Seoul Press-Hodge & Co, 1902.
- Jones, George Heber, 『英韓字典영한자뎨(An English-Korean Dictionary)』. Tokyo, Japan: Kyo Bun Kwan, 1914.
- Scott, James, *English-Corean Dictionary: Being a Vocabulary of Corean Colloquial Words in Common Use*. Corea: Church of England Mission Press, 1891.
- Underwood, Horace Grant, 「Part II. An English-Korean Dictionary」, 『韓英字典한영자뎨(A Concise Dictionary of the Korean Language in Two Parts Korean-English & English-Korean)』. Yokohama: Kelly & Walsh; London: Trubner & Co, 1890.
- Underwood, Horace Grant & Underwood, Horace Horton, 『英鮮字典(An English-Korean Dictionary)』.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韓佛字典(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cohama: C. Lévy Imprimeur-Libraire, 1880.

2. 단행본

- 김민수, 『全訂版 新國語學史』. 일조각, 1996.

3. 논문

- 김남신 외,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호랑이, 늑대, 표범의 서식분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2-4, 2019, 35-45쪽.
- 남길임, 「부표제어의 범위와 유형」. 『한국사전학』 9, 2007, 143-161쪽.

- 박대현, 「개화기조선어사전의 출판구조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양명희, 「띄어쓰기 변천을 통해 본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63, 2013, 197-223쪽.
- 윤애선, 「LEXml을 이용한 『한영사전(1911)』의 지식베이스 설계: 『한불즈넌(1880)』과의 통합적 지식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불어불문학연구』 87, 2011, 343-399쪽.
- 이은령, 「개화기의 이중어사전: 『불한사전』과 『한불사전』에 나타난 화용정보와 언어사용역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 15-30쪽.
- 이용호, 「외국인의 사전편찬사업」. 『명지어문학』 7, 1975, 15-28쪽.
- 이준환, 「개화기 및 일제 강점기 영한사전의 미시 구조와 국어 어휘 및 번역어 고찰: 공통 표제어 대응 어휘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80, 2012, 401-444쪽.
- 정동경, 「한국어 대역사전 비교 연구: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간행된 한영사전의 거시구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0, 2020, 51-96쪽.
- 조남호, 「서양인 편찬의 개화기 대역사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 어휘 연구 자료의 관점에서」. 『국어사연구』 22, 2016, 47-80쪽.
- 한성우, 「『한불사전』과 『한영사전』의 로마자 표기법 연구」. 『한국학연구』 58, 2020, 235-264쪽.
- 황호덕, 「번역가의 원손, 이중어사전의 통국가적 생산과 유통」. 『상허학보』 28, 2010, 93-145쪽.
- 황호덕·이상현,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근대 한국어」. 『아세아연구』 54-3, 2011, 41-97쪽.

국문초록

본고는 하지(J.W.Hodge)가 1902년에 개정증보하여 발행한 『Corean Words and Phrases』의 체재 및 표제어와 기술부에서 제공된 정보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1902)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낯선 영어 사용자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하지(1902)의 표제어 선정 및 의미 기술은 철저히 이러한 편찬 목적과 대상 독자를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전문어나 고유어보다는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기초어휘를 대상으로 표제어를 선정하였다. 둘째, 한국어 자모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안하고, 한국어 대응어와 한국어 관용어구, 한국어 예문의 발음을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반영하여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셋째,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기술하고, 문법(문장 종결법, 높임법)과 의미 관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대응어를 보여주었다. 또한 많은 수의 예문을 제공하여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를 한국어로 발화하고 문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하지(1902)는 영한사전이지만 표제어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1,000개가 넘는 한국어 어휘와 표현 및 그에 대한 영어 기술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지(1902)는 표제어나 대응어의 한국어와 관련한 언어적 정보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표제어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도 여러 가지 형식을 차용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였다.

투고일 2020. 12. 21.

심사일 2021. 1. 20.

게재 확정일 2021. 2. 17.

주제어(keyword) 개화기(Enlightment Period), 『Corean Words and Phrases』(1902), 영한대역사전(English-Korean Dictionary), 표제어 선정(the selection of headwords), 의미 기술(the semantic description)

Abstracts

A Korean Linguistic Study on English-Korean Dictionary,
Corean Words and Phrases(1902)
Jung, Dong-kyong

The primary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format and structures of the English-Korean dictionary titled *Corean Words and Phrases* published in 1902 by J. W. Hodge. This dictionary was published to help foreigners who were unfamiliar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 have basic communication in Korean. All the characteristics found in collecting headwords and semantic descriptions as follows are accordingly. First, this book collected headwords out of basic words and expressions which were used very frequently in daily conversation rather than out of technical terms or proper names. Secondly, this book suggested the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used it to notate the pronunciation of Korean equivalents, expressions, and illustrative sentences. Thirdly, this book described the grammatical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and showed various forms and kinds of Korean equivalents according to Korean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Also, it helps learners to make good use of Korean equivalent words in diverse settings by offering a large number of sample sentences. Fourthly, it offered the information of more than a thousand Korean words while describing headwords even though it was designed as the English-Korean dictionary. Lastly, it provided encyclopedic information about Korean society and culture related to the headwords as well as linguistic information of headwords, which enabled learners to understand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